

臟腑相通과 芝山圖表의 理解

김경철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동의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Correlation Between the Jang and Bu Organs and Jeesan's Diagram of Pulse

Kyung Chul Kim,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from a review on the theory of correlation between the jang-bu organs in "Ojangchunchakion(五臟穿鑿論)" which is quoted in "Uihakipmoon(醫學入門)" and "Donguibogam(東醫寶鑑)". The three yangs and three yins are trisections each of yang ki and yin ki. They represent three aspects of change in powers of yin ki and yang ki. The theory of Kaehapchu(開闔樞 the opening, closing and pivot) is thought to be the concept which explains the three states of jang-bu organs and meridians in terms of three yangs and three yins. The three yangs and three yins are assigned to twelve months according to the generation, prosperity and vanishment of the water, the fire, the wood and the metal in the circulation of nature with the lapse of time. Most of all, the change of the water and the fire is the main guide to the assignment. Both the theory of exterior-interior relations in jang-bu organs and meridians and the theory of Kaehapchu are founded on the assignment of three yangs and three yins to twelve months. The correlation between jang-bu organs is based on the monthly assignment of three yangs and three yins described in "Internal classic(內經)" and the theory of Kaehapchu. In the correlations between jang-bu organs and meridians, the exterior-interior relations are the correspondences of Hand to Hand and Foot to Foot. but the relations of Kaehapchu are those of Hand to Foot and Foot to Hand. Jeesan's diagram of pulse is grounded on the correlations between jang-bu organs. On the left of the diagram, jang organs are arranged in the order of hierarchic positions in body. On the right, bu organs are disposed according to the correlations with the jang organs. Jeesan's diagram includes the principles of triple harmony and diagonal groups in twelve earthly branches(十二支). Jeesan's diagram is the frame through which correlations of jung-ki-shin-hyul, five jang and six bu organs, twelve meridians and six intrinsic factors can be observed at once.

Key words : Jang and Bu organs, Jeesan's diagram, Kaehapchu(開闔樞), three yangs and three yins, Donguibogam(東醫寶鑑)

서 론

形象醫學에서 활용하는 芝山圖表는 『醫學入門·五臟總論』¹⁾ 과 『東醫寶鑑·五臟六腑』²⁾에서 『五臟穿鑿論』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臟腑相通 관계를 근거로 한 것으로, 이 이론을 朴³⁾이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놓고 관찰할 수 있는 간단한 글과 그림으로 만들어, 환자의 脈動 數를 이에 대입하여 주로 병의 소재와 치료 변화 과정을 진단하기 위해 응용하는 도표이다.

한의학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놓고 관찰하는 것은 인체가 발현하는 생명 현상과 아울러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구조적인 면의 관찰을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東醫寶鑑』⁴⁾에서는 인체 관찰 측면을 內景과 外形으로 분류하고, 內景은 다시 精, 氣, 神, 血과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 肝, 心, 脾, 肺, 腎, 膽, 胃, 小腸, 大腸, 膀胱, 三焦와 胞, 蟲, 小便, 大便으로 나누고, 外形은 頭, 面, ……., 前陰, 後陰으로 분류하였으며, 金⁵⁾은 인체의 관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e@dongeui.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3/03/18 · 수정 : 2003/04/11 · 채택 : 2003/05/22

1) 이천, 신교 편주 의학입문(상), p. 210

2) 허준, 국역증보 동의보감, p. 114

3)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 임상학특강 III, p. 2-5

4) 허준, 앞의 책, pp. 1-455

찰에 대하여 구성 요소적 관찰, 기능 요소적 관찰 및 현상 요소적 관찰로 해석하고 관찰된 각 요소를 각각 精氣神血, 五臟六腑, 三陰三陽-經脈-六氣로 분류하였으니 한의학에서 인체의 관찰 측면을 총괄하면 精氣神血, 五臟六腑, 經脈 및 外形으로 요약된다. 인체를 관찰하는 여러 측면 중에서 삼음삼양-경맥-육기의 측면에 대하여 금은 인체의 대사적 측면으로 파악하고, 인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사를 에너지 대사, 溫熱 대사 및 體液 대사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각각 風과 火의 발현, 寒과 熱의 발현 및 燥와 濕의 발현으로 설명하여 인체 내의 대사가 六氣의인 측면으로 관찰되는 생명현상을 內部 六氣라고 하였다⁵⁾.

한편 三陰三陽은 인체 외부 환경인 대기의 상태 즉 六氣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六氣의 상태를 음양의 변화로 나타내므로 六氣를 本 또는 六元이라고 하고, 三陰三陽을 標라고 하였으며⁶⁾, 이러한 六氣가 인체에 영향을 주는 부위 또는 경로는 手足, 三陰三陽, 臟腑와 연계하는 經脈으로 六臟六腑에 배속된 十二經脈이다. 즉 내부 六氣 발현을 陰陽의 二大 勢力에 의한 생명 현상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三陰은 六臟과 六臟經脈을 통한 대사이며, 三陽은 六腑와 六腑經脈을 통한 대사이다. 이러한 三陰三陽과 六氣 및 臟腑와의 관계는 『黃帝內經·靈樞·經脈』⁸⁾에서 肺手太陰之脈-大腸手陽明之脈, ……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이는 表裏 관계에 의한 相通으로서 一氣의 양면성에 의한 조절 즉 溫度의 兩面인 寒熱, 濕度의 兩面인 燥濕, 風度의 兩面인 風火의 조절로서 이해되고, 『五臟穿鑿論』의 상통 관계는 저자의 연구 논문⁹⁾을 비롯한, 『黃帝內經·素問·脈海篇』¹⁰⁾과 『素問·六微旨大論』¹¹⁾, 『素問·陰陽離合論』¹²⁾ 및 『靈樞·根結篇』¹³⁾을 통하여 그 근거의 일면을 살펴볼 때, 經脈의 開闔樞를 통한 음, 양의 세 가지 측면 즉 陽은 太陽, 陽明, 少陽으로 그 氣는 寒, 燥, 火로 발현되고, 陰은 太陰, 少陰, 厥陰으로 그 氣는 濕, 熱, 風으로 발현되어 이들 상호간의 조화 또는 대사의 평형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계로 이해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內經』을 비롯한 모든 문헌에 설명된 바가 없다.

이에 저자는 芝山圖表의 근간이 되는 『五臟穿鑿論』의 臟腑 相通 관계를 『內經』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근거를 고찰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본론 및 고찰

1. 三陰三陽의 理解

한의학에서는 자연계의 현상을 관찰, 종합하여 陰陽, 五運, 六氣論으로 인식 체계를 확립하고 이러한 인식 체계를 의학에

도입하여 외부 환경이 인체의 생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화하여 이를 병리 및 치료에 활용하여 왔다.

『素問·天元氣大論』¹⁴⁾에서 “陰陽之氣 各有多少 故曰 三陰三陽也, 形有盛衰 謂五行之治”라고 하고 “寒暑燥濕風火 天之陰陽也 三陰三陽 上奉之, 木火土金水火 地之陰陽也 生長化收藏 下應之”라고 하여, 五運은 형체의 변화에 대한 관찰로서 木火土金水로 표현하고, 六氣는 기상의 변화에 대한 관찰로서 風寒暑濕燥火를 말하며, 六氣는 실체이고 三陰三陽은 이를 표현하는 용어 혹은 인식 체계임을 밝혔다. 이러한 삼음삼양을 육기와 관련하여 연계하는 원칙을 『素問·六微旨大論』¹⁵⁾에서는 “上下有位 左右有紀”라고 하여 상하와 좌우의 좌표를 설정하고, “蓋南面而待之也 故曰 因天之序 盛衰之時 移光定位 正立而待之”라고 하여 남쪽을 향하여 서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기운의 성쇠와 빛의 움직임으로써 정하되 『素問·至真要大論』¹⁶⁾과 『靈樞·陰陽繫日月篇』¹⁷⁾에 陽明은 “兩陽合明” 혹은 “兩陽合於前”이라고 하고 厥陰은 “兩陰交盡”이라고 하여, 먼저 4 계절에 따라 太陽, 少陽, 太陰이 정해지고 2 차로 太陽과 少陽이 합해져서 陽明이 발현되며, 마찬가지로 少陰과 太陰의 기운이 다하고 난 뒤에 厥陰이 발현되어 계절의 변화에 따라, 기의 성쇠와 빛의 이동으로 보면 땅에서 발현되는 오행 즉 주기의 순차인 厥陰風, 少陰君火, 少陽相火, 太陰濕, 陽明燥, 太陽寒의 순차로 발현되나, 陰陽二氣 각각의 다소에 따른 순차로 보면 하늘에서 나타나는 육기 즉 객기의 순차인 一陽인 소양, 二陽인 양명, 三陽인 태양, 一陰인 권음, 二陰인 소음, 三陰인 태음의 순차로 발현됨을 밝혔다¹⁸⁾.

한편 기상의 변화와 인체의 변화간의 상관성을 『素問·天元氣大論』¹⁹⁾에서는 “天有五行 御五位 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臟 化五氣 以生喜怒憂思恐”이라고 하여 외부 육기의 변화는 곧 인체의 육기 변화와 공범률을 갖고 발현되며 그 것이 七情 또는 七情임을 시사하였고, 『素問·五運行大論』²⁰⁾에서는 “風寒在下, 燥熱在上, 濕氣在中, 火遊行其間, 寒暑六入 故令虛而生化也”라고 하여 외부 육기 공간 위치의 편차가 인체 오장 공간 위치의 편차와 공통되며, 외부 육기의 발현이 공간 위치의 편차에 따른 기의 다소에 의하여 나타나는 발현상이고, 따라서 외부 육기의 영향이 오장에 미치며 육기가 인체에 들어올 때는 공통된 공간 위치의 편차에 해당되는 오장 중의 하나의 기가 허할 때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므로 六氣의 개념이 인체 내부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 劉²¹⁾는 六氣에 의한 병을 설명함에 “厥陰風木 乃肝膽之氣也, 少陰君火 乃真心小腸之氣也, 太陰濕土 乃脾與胃之氣也. ……”라고 하였고, 尹²²⁾은 六氣의 현상을 溫度, 濕度, 風도로 해석하고 신체 내부에 이 삼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金²³⁾은 신

5) 김완희, 신생리학 총론, pp. 10-16

6) 김완희, 앞의 책, pp. 10-16

7)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소문, p. 241

8) 홍원식편, 정교황제내경영추, pp. 79-85

9) 이용태, 경맥의 개합추를 통한 대사 발현, 부산, 동의논집, 18집 pp. 137-143

10)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영추, pp. 184-185

11) 홍원식, 앞의 책, p. 243

12) 홍원식, 앞의 책, p. 242

13) 홍원식, 앞의 책, pp. 50-51

14) 홍원식, 앞의 책, pp. 233-234

15) 홍원식, 앞의 책 pp. 241-242

16) 홍원식, 앞의 책, p. 301

17) 홍원식, 앞의 책, p. 196

18) 樞英, 의학강목(下冊), pp. 40

19) 홍원식, 앞의 책, pp. 233

20) 홍원식, 앞의 책, p. 237

21) 유완소, 유하간 상한삼육서, p. 314

22)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 연구, p. 17

체 내부의 육기적 현상을 대사적인 측면에서 분석,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인체의 에너지 代謝는 風度로서 風과 火를 의미하고, 水分代謝는 濕度로서 濕과 燥를, 溫熱代謝는 溫度로서 寒과 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 方²⁴⁾ 등은 燥는 인체의 생리, 병리 중 건조현상이며, 溫熱 혹은 化物 현상은 火(暑)에 해당되고, 동적 현상은 風에, 滋潤 현상 혹은 액체 滯留 현상은 濕에, 寒冷 또는 凝滯 현상은 寒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부 육기 발현을 음양의 이대 세력에 의한 현상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세력인인 五臟과 五臟經脈을 통한 대사와, 양세력인 六腑와 六腑經脈을 통한 대사로 분석되니, 음세력에 의한 대사는 三陰經 즉 태음경, 소음경 및 궤음경과 이와 관련된 臟의 대사 활동으로 각각 濕, 熱, 風의 현상으로 발현되는 대사를 주로 수행하고, 양세력에 의한 대사는 三陽經 즉 태양경, 양명경 및 소양경과 이와 관련된 腑의 대사 활동으로 각각 寒, 燥, 火의 현상으로 발현되는 대사를 주로 수행하여 음양 이대 세력이 평형을 유지함으로써 내적 조건인 風度, 溫度, 濕度を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삼음삼양은 생명활동 과정 중에 발현되는 실체로서의 육기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風은 厥陰, 寒은 太陽, 暑는 少陰, 濕은 太陰, 燥는 陽明, 火는 少陽으로 연관되지만, 심장을 태양으로, 폐를 소음으로, 간을 소양으로, 신을 태음으로 비를 지음으로 설명하거나²⁵⁾, 머리를 태양, 발을 소음, 前을 양명, 後를 태음, 裏를 궤음, 表를 소양으로 설명하기도 하니²⁶⁾, 육기가 아닌 위치나 순서를 설명할 때에는 陰陽氣의 多少 혹은 形氣 관계 및 陽進陰退의 이치에 따라 설명하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²⁷⁾.

2. 三陰三陽과 開闔樞

『素問·陰陽離合論』²⁸⁾, 『素問·皮部論』²⁹⁾ 및 『靈樞·根結』³⁰⁾에서 三陽經중 太陽經을 三陽으로 開, 陽明經을 二陽으로 闔, 少陽經을 一陽으로 樞라고 하였고, 三陰經 중 太陰經을 三陰으로 開, 少陰經을 二陰으로 樞, 厥陰經을 一陰으로 闔이라고 하고, 인체에서의 각각의 위치와 생리적 특성 및 병리적 특성, 그리고 상호간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양³¹⁾은 開를 關으로 기술하고, 음, 양의 開闔樞를 각각 內門과 外門의 개폐에 비유하여 설명하였고³²⁾, 왕³³⁾은 삼음, 삼양의 기의 다소에 의한 동정의 편차 발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오³⁴⁾와 장³⁵⁾, 장³⁶⁾ 및 왕³⁷⁾은 삼음, 삼양경

의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表와 裏 및 表裏之間에 의한 분류로서 해석하였다. 그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開는 氣를 主出하고 敷暢, 敷布하는 기능을, 闔은 氣를 主入하고 受納하는 기능을, 樞는 氣의 轉輸 또는 貯藏하고, 出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양³⁸⁾은 三陽經 開闔樞의 생리기능을 설명함에 開는 布氣, 闔은 精氣化源의 地, 樞는 陽氣의 출입 조절로 설명하고, 三陰經 開闔樞 중 開는 運化水液, 闔은 陰血 涵藏之所, 樞는 陰血의 출입 조절로 각각 설명하였고, 진³⁹⁾은 三陰의 開는 血脈 周流와 津液 四達로서, 闔은 血脈 潛藏 而不妄泄과 陰血 收斂 而火不作으로, 樞는 內含包絡, 下生脾土, 上濟肺金, 下生肝木으로 설명하고, 三陽의 開는 主三陽之表, 氣之發散, 闔은 受納水穀, 化生精微, 糟粕의 內行下達로, 樞는 氣의 內外出入과 上下往來를 조절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로써 볼 때 開闔樞는 陰陽氣 즉 오장의 기와 육부의 기의 다소에 의하여 발현되는 현상인 대사활동이, 음과 양 각각 기의 出과 入 그리고 出入의 조절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기능활동을 의미하며, 이 세 가지 기능 각각의 직무를 인체의 배속 위치에 연계하여 담당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생각된다. 즉 태양경은 소양경, 양명경과 공동으로 기능을 하되, 방광경과 소장경을 통하여 주로 양기를 부창하고, 양명경은 역시 태양경, 소양경과 공동으로 기능을 하되, 대장경과 위경을 통하여 주로 양기를 수납하며, 소양경은 역시 태양경, 양명경과 공동으로 기능을 하되, 삼초경과 담경을 통하여 주로 양기의 출입을 조절한다. 또 태음경은 소음경, 궤음경과 공동으로 기능을 하되, 비경과 폐경을 통하여 주로 음기를 부포하고, 소음경은 역시 태음경, 궤음경과 공동으로 기능을 하되, 심경과 신경을 통하여 주로 인체 내의 음기를 충만케 하여 양기의 기화를 원활하게 하여주고, 궤음경은 역시 태음경, 소음경과 공동으로 기능을 하되, 간경과 심포경을 통하여 주로 음기를 수납하는 것이다.

한편 『靈樞·經脈篇』⁴⁰⁾에서는 방광경은 筋을, 소장경은 液을 주하며, 대장경은 津을, 위경은 血을 주하고, 담경은 骨을, 삼초경은 氣를 각각 주한다고 하였고, 오장은 각각의 氣를 주하고 심포경은 脈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또 『靈樞·本神篇』⁴¹⁾에서는 오장이 각각 血, 氣, 精, 神, 營을 저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開闔樞는 陰陽이 각각 三陰과 三陽으로 나뉘어 三陽經은 陽化氣 즉 이화작용이 주라면, 三陰經은 陰成形 즉 동화작용이 주로 나타나고, 三陽經은 氣血, 津液, 筋骨의 활동을 주관하며, 三陰經은 三陽經의 활동에 필요한 精氣인 血氣, 精神, 營脈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여 음양의 평형과 균형을 조절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三陰三陽의 月別 配屬과 表裏 및 開闔樞의 關係

『素問·脈海篇』⁴²⁾에서는 12 地支 중 陽支 즉 寅, 辰, 午, 戌, 子에 각각 태양, 궤음, 양명, 소양, 태음을 배속하고 유일하게

23) 김완희, 앞의 책, pp. 10-16

24) 방약중, 허기송, 황제내경 운기철편 강해, p. 41

25) 홍원식, 앞의 책, 소문, 육질잡상론, pp. 36-37

26) 홍원식, 앞의 책, 소문·음양이합론, p. 29

27) 대한동의생리학회편, 동의생리학, pp. 124-125

28) 홍원식, 앞의 책, p. 29

29) 홍원식, 앞의 책, p. 198

30) 홍원식, 앞의 책, pp. 50-51

31) 양상선, 황제내경 태소·음양합, pp. 59-61

32) 많은 학자들이 開를 關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동중의학원 등, 황제내경소문교석, pp. 105-106 호천응, 소문보식, p. 55, 이용양상선의 삼음삼양 학설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0권

33) 왕빙, 황제내경소문, p. 12

34) 오근, 내경소문오주, p. 33

35) 장개빈, 유경(상), pp. 286-287

36) 장은암, 마원대, 황제내경소문, p. 65

37) 왕기, 황제내경 소문 금석, p. 39

38) 양력, 개합추이론 급기응용, 운남, 운남중의잡지, vol. 7, pp. 1-4

39) 진정삼, 의학심원, pp. 20-21

40) 홍원식, 앞의 책, pp. 79-85

41) 홍원식, 앞의 책, pp. 68-69

42) 홍원식, 앞의 책, pp. 184-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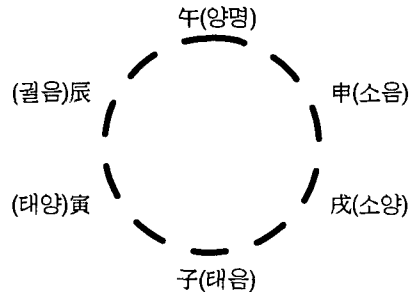
陰支인亥에 소음을 배속하고 있다. 이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正月 太陽 寅, 寅 太陽也”, “少陽 所謂 心脇痛者, 言少陽 戌也. 九月 陽氣盡”, “陽明者 午也, 五月 盛陽之陰也, 陽盛而 陰氣加之”, “太陰 子也, 十一月”, “少陰者 腎也, 十月 萬物 陽氣 皆傷”, “厥陰者 辰也, 三月 陽中之陰”으로 되어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少陰으로써, 다른 二陰, 三陽은 모두 地支의 명칭과 함께 陽支에 배속되어 있으나, 소음만은 地支의 명칭이 아닌 臟의 명칭이며 또한 陰支에 배속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배속되어 있는 계절인 음력 十月이면 날씨의 상태가 매우 추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설명되어 있는 날씨를 보면, “秋氣始至 微霜始下 而方殺萬物”이라고 하여 가을이 시작되고 서리가 미약하게 내리며 바야흐로 만물이 상하기 시작하는 초가을의 날씨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黃帝內經太素·經脈病解』⁴³⁾에서는 “少陰者 腎也 七月 萬物 陽氣 皆傷”이라고 하여 『脈海篇』에서 十月이라고 한 것을 七月로 수정하였는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腎 또한 申자의 착오임을 알 수 있으나⁴⁴⁾, 삼음삼양의 월별 배속은 모두 陽支에 배속되고 각각 그 계절의 특성과 그 것이 인체의 생리, 병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내용인 것이다.

한편 少陰이 七月이 됨을 설명하는 楊⁴⁵⁾의注를 보면 “七月 秋氣始至 故曰少陰, 十一月 少陰之氣大, 三月 少陰已厥, 故少陰至腎 七月之時”라고 하였다. 즉 少陰의 기운이 辰 三月에는 사라지고, 申 七月에는 생성되며, 子 十一月에는 왕성하게 발현됨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는 水氣의 변화 과정인 歲氣會同을 말하는 것이다. 歲氣會同에 대하여 『素問·六微旨大論』⁴⁶⁾을 살펴보면, 일년을 365日 25刻으로 정하고 甲子年 즉 子年에는 1刻에서 시작해서 25刻으로 끝나며, 乙丑年 즉 丑년에는 26刻에서 시작해서 50刻으로 끝나고, 丙寅年 즉 寅년에는 51刻에서 시작해서 75刻으로 끝나며, 丁卯年 즉 卯년에는 76刻에서 시작해서 0刻으로 끝난다. 무진년 즉 辰년에는 다시 1각에서 시작해서 25각으로 끝나게 되니, 1각에서 시작하는 해는 子, 辰, 申년이고, 26각에서 시작하는 해는 丑, 巳, 酉년이며, 51각에서 시작하는 해는 寅, 午, 戌년이고, 76각에서 시작하는 해는 卯, 未, 亥년이 되어 이를 각각 세기회동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寅午戌은 火氣의 세기회동이며, 申子辰은 水氣의 세기회동이고, 巳酉丑은 金氣의 세기회동이며, 亥卯未는 木氣의 세기회동이 되는 것이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25각	甲子	戊辰	壬申	申子辰·水
26-50각	乙丑	己巳	癸酉	巳酉丑·金
51-75각	丙寅	庚午	甲戌	寅午戌·火
76-0각	丁卯	辛未	乙亥	亥卯未·木

이로써 보면 삼음삼양의 월별 배속은 세기회동의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계절의 변화가 陰陽, 寒熱의 변화이고, 陰陽, 寒熱의 변화를 대표하는 水火의 변화를 나타내는 地

支 즉 水氣의 변화를 나타내는 申, 子, 辰월에 각각 三陰 중 소음, 태음, 궤음을 배속하고, 火氣의 변화를 나타내는 寅, 午, 戌월에 각각 三陽 중 태양, 양명, 소양을 배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陽은 태양에서 시작하여 양명, 소양의 순서로 펼쳐지고, 陰은 소음에서 시작하여 태음, 궤음의 순서로 펼쳐져서 陽進陰退의 이치를 보여주며, 그리고 陽은 태양, 양명, 소양의 순서로 상한 삼양증의 전병과정이 되고, 陰은 역순으로 태음, 소음, 궤음의 순서로 상한 삼음증의 전병과정이 되는 이치도 보여주고 있다.

한편 六氣의 조절인 燥濕, 寒熱, 風火의 조절 관계로 볼 때, 子午 즉 태음과 양명-濕과 燥가 表裏가 되며, 寅申 즉 태양과 소음-寒과 熱이 表裏가 되고, 辰戌 즉 궤음과 소양-風과 火가 表裏가 되어 각각 습도, 온도, 풍도의 평형 조절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開闔樞 이론으로 볼 때, 태양과 태음을 開로써 묶고, 궤음과 양명을 闔으로써 묶으며, 소음과 소양을 樞로써 묶어 보면 일년이 開, 闔, 樞의 순서로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開闔樞 이론에 따른 六氣의 조절 관계로 보면 태양-태음 즉 한-습의 조절, 소음-소양 즉 열-화의 조절 및 궤음-양명 즉 풍-조의 조절을 보여주니, 요약하면 表裏關係가 상반된 氣의 조절이라면 開闔樞關係는 유사한 氣의 조절 관계임을 알 수 있다.

4. 開闔樞와 臟腑 相通 關係

三陰三陽과 臟腑 및 經脈의 배합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六氣의 공간 위치 및 장부의 공간 위치에 따라서 음양이 정해진다. 즉 『素問·五運行大論』⁴⁷⁾에서는 “風寒在下, 燥熱在上, 濕氣在中, 火遊行其間, 寒暑六入 故令虛而生化也”라고 하여 외부 육기 공간 위치와 인체 오장 공간 위치가 공통되며, 이에 따라 풍, 한, 습은 陰에 속하고, 조, 열, 화는 陽에 속하며, 경맥의 수족 배속에서 手는 陽에 속하고 足은 陰에 속하므로 풍, 한, 습은 우선 足經에 배합하고, 조, 열, 화는 手經에 배합된다.

다음은 三陰은 臟에 배합되고, 三陽은 腑에 배합되며, 마지막 標本中氣 이론에 따라⁴⁸⁾ 本氣인 육기에 따라 장부를 우선 배속하고, 다음에 中氣에 따라 장부를 배속한다⁴⁹⁾. 예를 들면, 三陽 중 太陽은 족태양 방광경이 우선 배합되고, 다음은 수태양

43) 양상선, 앞의 책, p. 117
 44) 이용범, 앞의 책, p. 457
 45) 양상선, 앞의 책, p. 117
 46) 홍원식, 앞의 책, p. 243

47) 홍원식, 앞의 책, p. 237
 48) 홍원식, 앞의 책, 소문·육미지대론, p. 241
 49) 대한동의생리학회편, 동의생리학회, pp. 130-131

소장경이 배합된다. 또 三陰 중 太陰은 족태음 비경이 우선 배합되고, 다음은 수태음 폐경이 배합된다.

이를 『靈樞·經脈篇』에 따라 표리 관계로 나타내면, 手太陰肺經-手陽明大腸經, 足陽明胃經-足太陰脾經, 手少陰心經-手太陽小腸經, 足太陽膀胱經-足小陰腎經, 手厥陰心包經-手少陽三焦經, 足少陽膽經-足厥陰肝經이 되어 表裏關係에서 보면 장부, 음양의 배합이 足經은 足經과 배합되고, 手經은 手經과 배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태음	手太陰肺經	手陽明大腸經	양명
	足太陰脾經	足陽明胃經	
소음	手少陰心經	手太陽小腸經	태양
	足小陰腎經	足太陽膀胱經	
厥음	手厥陰心包經	手少陽三焦經	소양
	足厥陰肝經	足少陽膽經	

한편 開闔樞 이론에 따라 음양 각각의 개, 합, 추를 배합하면 태음-태양,厥음-양명, 소음-소양이 배합되고 이를 장부 및 경맥 관계로 나타내면 『의학입문』과 『동의보감』에 기술된 장부 상통관계가 이루어진다. 즉 수태음폐경-족태양방광경, 족태음비경-수태양소장경, 수소음심경-족소양담경, 족소음신경-수소양삼초경, 수궤음심포경-족양명위경, 족궤음간경-수양명대장경이 되어 개합추 관계에서 보면 장부, 음양의 배합이 足經은 手經과 배합되고, 手經은 足經과 배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開) 태음 (濕)	手太陰肺經(燥)	足太陽膀胱經	(開) 태양 (寒)
(闔) 궤음 (風)	手厥陰心包經(火)	足陽明胃經(濕)	(闔) 양명 (燥)
(樞) 소음 (熱)	手少陰心經(熱)	足少陽膽經(風)	(樞) 소양 (火)
	足太陰脾經(濕)	手太陽小腸經	
	足厥陰肝經(風)	手陽明大腸經(燥)	
	足小陰腎經(寒)	手少陽三焦經(火)	

이로써 보면 장부 상통 관계는 삼음삼양의 개합추 이론을 근거로 하여 형성되는 관계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陰陽이 각각 三陰과 三陽으로 나뉘어 陽化氣 즉 이화작용을 주로 하며, 氣血, 津液, 筋骨의 활동을 주관하는 삼양경과, 陰成形 즉 동화작용을 주로 하며, 삼양경의 활동에 필요한 血氣, 精神, 營脈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삼음경이 手足, 上下로 배합되어 인체의 생리적 평형을 조절하는 관계이며, 또한 육기의 조절 관계를 보면, 태양-태음 즉 寒濕을 조절하면서 이면으로는 濕熱과 燥寒을 각각 조절하고, 궤음-양명 즉 風燥를 조절하면서 이면으로는 火濕과 風燥를 각각 조절하며, 소음-소양 즉 熱火를 조절하면서 이면으로는 風熱과 寒火를 각각 조절하여 인체 내부 육기의 평형을 조절하는 관계로 해석된다.

5. 臟腑相通과 芝山圖表

장부 상통에 대하여 『의학입문』에서는 六臟六腑說에 근거

하여 심-담, 간-대장, 비-소장, 폐-방광, 신-삼초, 위-명문 상통을 언급하였으나, 『동의보감』에서는 胃-命門 相通에 대한 내용을 없애고 五臟五腑說의 相通說을 언급하였다. 대신 命門을 心包로 바꾸어 心包-胃 相通에 관한 내용을 『東醫寶鑑·胸門』과 『東醫寶鑑·鬪門』에서 “心包絡이 胃와 더불어 서로 응한다”고 하였고⁵⁰⁾, 『東醫寶鑑·婦人門』⁵¹⁾에서는 “자궁의 經脈이 胃口에 연락되어” 있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육장육부설에 근거한 장부 상통을 설명하고 있고 아울러 心包는 곧 胞와 같은 개념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장부 상통 관계를 朴⁵²⁾은 인체의 육장 배열을 오행설에 근거한 장부의 공간 위치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공간 위치에 상응하게 階位대로 배열하여 폐-방광, 심-담, 심포-위, 비-소장, 간-대장, 신-삼초로 배열하고 이를 인체를 관찰하는 도구 및 맥을 통한 진단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도표로 만들었다. 즉 좌측에는 오장을 상하 階位에 따라 배열하고, 우측에는 좌측의 장과 상통되는 부를 배열하였다.

左 (手)	肺 心 心包	膀胱 膽 胃	右 (足)
左 (足)	脾 肝 腎	小腸 大腸 三焦	右 (手)
男		女	

인체 내의 장부가 있는 그대로 階位에 따라 상하로 배열되는 근거는 『素問·病能論』⁵³⁾에 “肺者 臟之蓋也”라고 하여 폐가 오장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제시한 내용과, 『東醫寶鑑·虛勞門』⁵⁴⁾에서 虛勞의 진행 순서를 언급함에 그 순서를 상하 위치에 따라 폐-심-비위-간-신의 순서로 설명한 내용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⁵⁵⁾. 또한 좌측에는 六臟을 배열하고 이를 男子에 적용하며, 우측에는 六腑를 배열하고 이를 女子에 적용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공⁵⁶⁾은 태아가 임신 3개월에 右腎이 먼저 나면 남자가 되고, 左腎이 먼저 나면 여자가 된다고 하여, 남녀를 좌우에 배속할 때 근본은 男右女左라고 하였으나, 태어나서 질병을 관찰할 때에는 男左女右로 손의 虎口三關을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⁵⁷⁾는 男女의 맥을 관찰함에 있어 남자는 左脈이 강하고 右脈이 약하며, 여자는 右脈이 강하고 左脈이 약하므로 남자는 左手를 먼저 진맥하고, 여자는 右手를 먼저 진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남녀를 좌우에 배속함에 생성의 근본 즉 體는 男右女左이지만, 생활을 영위하는 用은 男左女右로 배속함을 알 수 있다. 한편 『素問·上古天眞論』⁵⁸⁾에 남녀의 변화를 8의 배수와 7의 배수에 따라 나타남을 설명하고, 그 변화의 측을 남자는 腎 즉 臟을 근본으로 하고, 여자는 胃 즉 腑를 중

50) 허준, 앞의 책, pp. 336, 606
 51) 허준, 앞의 책, p. 962
 52) 박인규, 앞의 책, p. 23
 53) 홍원식, 앞의 책, p. 173
 54) 허준, 앞의 책, p. 663
 55)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지산선생 임상학특강 III』에 나와 있다.
 56) 龔信, 고금의감, pp. 381-383
 57) 이천, 앞의 책, p. 257
 58) 홍원식, 앞의 책, p. 11

심으로 함을 밝힌 것을 통하여 芝山圖表의 좌우, 남녀의 배속 원리에 대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6. 芝山圖表의 理解

芝山圖表는 장부 상통 관계를 근거로 하여 인체를 있는 그대로 놓고 그린 그림이라고 하였다. 즉 지산도표에 인체를 그대로 대입하여 인체의 여러 가지 측면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歲氣會同과 十二經脈의 地支 배합⁵⁹⁾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十二地支의 合에 대하여 살펴보면, 相沖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合, 夫婦合, 三合 및 方合이 있다. 相沖關係의 合은 正化, 對化에 의한 合으로 子午, 丑未, 寅申, 卯酉, 辰戌, 巳亥合을 말하며, 夫婦合은 『東醫寶鑑·身形門』⁶⁰⁾에 “대개 天干은 甲이 반드시 己에 합해서 生하고, 地支는 丑이 반드시 子에 합해서 育成되나…….”라고 한 비와 같이 子丑, 寅亥, 卯戌, 辰酉, 巳申, 午未合을 말하며, 三合은 歲氣會同을 말하고, 方合은 東西南北 방위에 해당되는 地支인 子, 午, 卯, 酉를 중심으로 각각 전후에 해당되는 地支를 묶어서 형성된 합을 각각 의미한다.

歲氣會同에 의한 三合 각각의 五行 배속을 보면, 寅午戌은 火의 변화를 나타내고, 申子辰은 水의 변화를, 亥卯未는 木의 변화를, 巳酉丑은 金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다. 이를 십이경맥의 地支 배합과 관계 지워 살펴보면 수태음폐경은 寅, 수소음심경은 午, 수궐음심포경은 戌에 해당되므로 이 三經은 공동으로 寅午戌, 火氣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족태음비경은 巳, 족궐음간경은 丑, 족소음신경은 酉에 해당되므로 이 三經은 공동으로 巳酉丑, 金氣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며, 수태양소장경은 未, 수양명대장경은 卯, 수소양삼초경은 亥에 해당되므로 이 三經은 공동으로 亥卯未, 木氣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족태양방광경은 申, 족소양담경은 子, 족양명위경은 辰에 해당되므로 이 三經은 공동으로 申子辰, 水氣의 변화를 각각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芝山圖表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火	폐(寅) 심(午) 심포(戌)	방광(申) 담(子) 위(辰)	水
金	비(巳) 간(丑) 신(酉)	소장(未) 대장(卯) 삼초(亥)	木

芝山圖表에 배속된 五行을 해석하면, 火는 心 또는 神으로 해석되고, 水는 腎 또는 精으로 해석되며, 金은 肺 또는 氣로 해석되고, 木은 肝 또는 血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지산도표는 단순히 장부상통의 관계나 경락의 운행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精氣神血로 해석해 볼 수도 있으며, 오장육부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肺, 心, 心包經은 각각 자체의 기능을 영위하면서 공동으로 火氣, 心 또는 神의 생성, 왕성, 소멸과정 세 가지 측면의 생리, 병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脾, 肝, 腎經은 각각 자체의 기능을

영위하면서 공동으로 金氣, 肺 또는 氣의 생성, 왕성, 소멸과정 세 가지 측면의 생리, 병리를 담당하고 있고, 膀胱, 膽, 胃經은 각각 자체의 기능을 영위하면서 공동으로 水氣, 腎 또는 精의 생성, 왕성, 소멸과정 세 가지 측면의 생리, 병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小腸, 大腸, 三焦經은 각각 자체의 기능을 영위하면서 공동으로 木氣, 肝 또는 血의 생성, 왕성, 소멸과정 세 가지 측면의 생리, 병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十二地支의 合 중에 方合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살펴보면, 『東醫寶鑑·小兒門』⁶¹⁾에서 “潮熱로 인하여 변해서 搐이 되는 症이 이른 새벽의 寅, 卯, 辰時에 있는 것은 肝이 왕성한 것이니……, 巳, 午, 未時에 있는 것은 心이 왕성한 것이니……, 申, 酉, 戌時에 있는 것은 肺가 왕성한 것이니……, 亥, 子, 丑時에 있는 것은 腎이 왕성한 것이니……”라고 하였다. 즉 十二地支의 合을 방위에 의한 合의 측면에서 五行에 배속하여 보면, 寅卯辰은 東 또는 肝木에 속하고, 巳午未는 南 또는 心火에 속하며, 申酉戌은 西 또는 肺金에 속하고, 亥子丑은 北 또는 腎水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한편, 권⁶²⁾은 육기의 대화원리에 따른 경락 배속을 논하면서, 子에 족소음신경, 丑에 족태음비경, 寅에 수소양삼초경, 卯에 수양명대장경, 辰에 수태양소장경, 巳에 수궐음심포경, 午에 수소음심경, 未에 수태음폐경, 申에 족소양담경, 酉에 족양명위경, 戌에 족태양방광경, 亥에 족궐음간경을 각각 배속하고 이를 十二地支의 四象原理에 따른 경락 배속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方合의 五行 배속과 육기에 따른 경맥 배속을 지산도표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火	폐(未) 심(午) 심포(巳)	방광(戌) 담(申) 위(酉)	金
水	비(丑) 간(亥) 신(子)	소장(辰) 대장(卯) 삼초(寅)	木

이를 三合의 경우와 같은 논리로 해석하면, 肺, 心, 心包經은 각각 자체의 기능을 영위하면서 공동으로 火氣, 心 또는 神의 생성, 왕성, 소멸과정 세 가지 측면의 생리, 병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脾, 肝, 腎經은 각각 자체의 기능을 영위하면서 공동으로 水氣, 腎 또는 精의 생성, 왕성, 소멸과정 세 가지 측면의 생리, 병리를 담당하고 있고, 膀胱, 膽, 胃經은 각각 자체의 기능을 영위하면서 공동으로 金氣, 肺 또는 氣의 생성, 왕성, 소멸과정 세 가지 측면의 생리, 병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小腸, 大腸, 三焦經은 각각 자체의 기능을 영위하면서 공동으로 木氣, 肝 또는 血의 생성, 왕성, 소멸과정 세 가지 측면의 생리, 병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지산도표의 내용은 장부 상통의 원리를 배경으로 하여, 陰經과 陽經을 짝 지우고, 手經과 足經을 짝 지우는 형식으로, 항상 상반된 기운을 갖는 것을 짝 지우는 형식이며, 지산도표의 좌측은 六臟의 階位에 의하여 정해지고, 우측은 六

59) 이천, 앞의 책, pp.149-171
手太陰肺經... 每旦寅時... 手陽明大腸經... 卯時...
60) 허준, 앞의 책, p.2

61) 허준, 앞의 책, p.1019
62) 권창준, 간지이론, p.137

臟과 상통되는 六腑를 六臟의 階位에 따라서 정해진 것으로서, 또한 十二地支의 三合과 方合의 運行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地山도표를 그대로 보면 12경맥의 상통 관계이지만, 장부로 보면 장부의 상통 관계로 나타나고, 三合과 方合의 의미로 보면 精, 氣, 神, 血의 상관 관계로 나타나며, 三陰三陽으로 해석하면 내부 六氣의 조절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인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결 론

芝山圖表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서 제시한 『五臟穿鑿論』의 臟腑相通說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삼음삼양은 陰陽二氣의 三分으로, 一陰一陽 각각의 세력 변화를 나타내는 세 가지 측면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개합추 이론은 삼음삼양을 인체에 적용하여, 인체의 장부, 경맥의 기능 활동을 陰陽二氣의 세 가지 측면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삼음삼양의 월별 배속은 歲氣會同의 원리에 따라, 水, 火, 木, 金의 기운이 생성, 왕성, 소멸되는 이치를 근거로 하되, 그 중 水火二氣의 변화를 중심으로 배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삼음삼양의 월별 배속이 장부, 경맥의 표리 이론과 개합추 이론의 근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장부상통설의 이론적 근거는 『황제내경』에서 제시한 삼음삼양의 월별 배속과 이를 근거로 하는 개합추 이론임을 알 수 있었다. 장부, 경맥의 상통 관계에서, 표리 관계는 手-手, 足-足의 상통 관계이며, 개합추 관계는 手-足, 足-手の 상통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地山도표는 장부 상통이론을 근거로 하되, 인체가 있는 그대로 좌측에는 臟을 上下 階位에 따라 배열하고, 우측에는 臟에 상통되는 腑를 배열하여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地山도표는 12 地支의 三合과 方合 원리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地山도표는 精氣神血, 五臟六腑, 十二經脈 및 內部 六氣의 상관 관계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공신, 고급의감, 북경, 중국 중의약출판사, 1999.
2. 권창준, 간지의론, 부산, 도서출판 곤오원, 2001.
3. 김완희, 신생리학 총론,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실, 1984.
4. 대한동의생리학회편, 동의생리학, 서울, 일지사, 2002.
5.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 임상학특강 I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6. 루영, 의학강목(下冊), 서울, 일지사, 1985.
7. 방약중, 허가승, 황제내경 운기철편강해,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90.
8. 산동중의학원 등, 황제내경 소문교석,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91.
9. 양상선, 황제내경 태소, 서울, 대성문화사, 1991.
10. 오곤, 내경소문오주, 산동, 산동과학기술출판사, 1984.
11. 왕기, 황제내경 소문 금석, 서울, 성보사, 1983.
12. 왕빙, 황제내경 소문, 대북, 대만중화서국, 1980.
13. 유완소, 유하간 상한삼육서, 서울, 성보사, 1976.
14.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 연구, 서울, 성보사, 1983.
15. 이천, 신교 편주 의학입문(상), 서울, 대성문화사, 1994.
16. 장은암, 마원대, 황제내경 소문, 서울, 성보사, 1975.
17. 진정삼, 의학심원, 사천, 사천과학기술출판사, 1985.
18. 허준, 국역증보 동의보감, 서울, 남산당, 1991.
19. 호천웅, 소문보식, 북경, 중국약과기출판사, 1991.
20. 홍원식, 정교 황제내경 소문, 서울, 동양의학 연구원, 1985.
21. 홍원식편, 정교 황제내경 영추, 서울, 동양의학 연구원, 1985.
22. 양력, 개합추이론 급기응용, 운남, 운남중의잡지, vol. 7, 1-4, 1986.
23. 이용범, 양상선의 삼음삼양 화설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 의사학회지, 10권, 1997.
24. 이용태, 경맥의 개합추를 통한 대사 발현, 부산, 동의논집, 18집, 137-143, 1991.